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8호 [루게 제24481호] 주제 103 (2014)년 3월 9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왔다.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이 경사의 날을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다.

우리의 인민주권을 다지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한결같이 떨쳐나 찬성의 한결을 바치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지금 전국의 모든 선거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력사의 온갖 공화국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전제 선거자들의 드높은 애국의 일념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애국의 한결, 찬성의 한결로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려는것이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의지로 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정권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수하고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어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이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력사적부름이 내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정권의 혁명적본래가 있고 우월성이 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정권도 각이하다. 우리 나라, 우리 인민정권과 같이 실시하는 정치와 배후는 시책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라, 그러한 정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세기를 이어가며 자주적인간의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고있는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위에 세상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정권건설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고수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으로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지침으로 심화발전되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원칙으로 정식화되게 되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우리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이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정권이야말로 절대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며 우리 인민모두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함으로써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공화국국민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서 새로운 전환점계기로 된다.

우리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고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인 높고 모시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최고주권기관을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민정권의 강

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만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이 된다. 인민군군인들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 일군들을 비롯한 대의원후보자들은 지난 기간 수명결과 우위투사,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했다. 당과 수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이런 전위투사들로 최고주권기관이 꾸러질 때 공화국정권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뚜렷이 과시되고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업은 보다 큰 활력을 넘쳐 힘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이번 선거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된다.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최강의 무기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 인민정권의 강화발전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근본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천지동파가 휘몰아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공화국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함께 해나가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될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앞에 내서는 지상의 과업이며 공화국정권의 최대의 사명이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창건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전체 조국통일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정권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이번 선거는 우리 군대와 인민뿐 아니라 남조선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자극과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인겨주게 될것이다.

전제 인민이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총정의 한결, 찬성의 한결을 바치는것은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분출이다. 모든 선거자들은 존엄높은 선군조

선의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인민정권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갈 불타는 열정을 안고 오늘의 선거에 참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정권건설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하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하나하나의 선거표에는 우리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전체 조국통일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정권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이번 선거는 우리 군대와 인민뿐 아니라 남조선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자극과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인겨주게 될것이다.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공화국정권의 품속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긍지와 자부심이 선거장마다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우리의 수명,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

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한 인민, 피어린 혁명의 전위물들을 생생처럼 귀중히 여기며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의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길은 주체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길,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통성번영의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인민정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위업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실적을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전위투사, 열렬의 동지로서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을 안고 선거에 적극 참가하는 우리의 식 사회주의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뜨겁게 새겨야 한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찬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3월8일혁명 51돐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적대적인 침략세력들의 공격에 맞서싸우는 수리아를 지지해주고계시는 각하와 귀국의 립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4년 3월 6일

디마스끄

평양산원에 넘치는 친어버이사랑

【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평양산원에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사랑의 전설이 또다시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산원에 입원한 산모들을 비롯한 녀성들을 위하여 신선한 잉어를 보내주시었다.

7일 오후 잉어를 가득 실은 자동차 소문도 없이 평양산원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모들의 건강에 잉어가 좋다고 하시며 펴편 뒷는 물고기를 한시바삐 산원으로 보내주도록 하시었다는 이야기를 감동깊이 전해들은 산원의 일군들과 녀성들은 순주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산원의 산모들과 녀성들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한 보양제들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을 가슴에 새기며

그들은 눈시울을 적시었다.

지난 2월 세쌍둥이를 낳은 혜산시 혜산동 45인민반 진숙숙녀성은 이날 저녁 잉어탕이 오른 식탁을 마주하자 감격에 목이 짝 메어 싯웃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모들에게 잉어탕, 잉어죽도 먹이도록 다심하게 이르시었다는것을 친정어머니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것이다.

궁전같은 평양의 산원에서 세쌍둥이를 품에 안은 기쁨도 끝없는데 우리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접하고보니 그에게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제일로 이치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정녕 우리들이 한생토록 안겨 살 행복의 요람이다.

세상에 없는 희한한 치료시설에서 성과적으로 수술을 받고 두번다시 태어났다는 용진군 용진로동자구 23인민반 한순숙녀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제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전선길에서 튼튼한 녀성비행사들을 한몸에 안아 영광의 절정을 세워주시고 오늘 산원에서 녀성들의 명절을 맞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영양가 높은 물고기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더더욱 못건디게 그리워진다.

노래에도 있듯이 원수님과 우리 녀성들, 인민들 사이에 피출처럼 맺어진 것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뼈로 절감하게 된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큰절을 올린다.

평양산원 과장 장택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은정어린 선물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산원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짙어있는 녀성들을 위한 의로부사령관임을 가슴뜨겁게 느끼곤 한다.

은한뿐 들이지 않고 이곳에서 최상의 특전을 누리고있는 우리 산모들처럼 북반은 녀성들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산모들에게 그대로 가람도록 치료사업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산원에 꽃피는 사랑의 전설은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인민의 최고화신인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겨주며 어머니당의 령도를 받들어 총정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갈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고 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리진명 작음

설화

다 시 한 퀘도 전자 차 장 의 생 활 에 서

로선은 여러해만에 고향인 윤전군을 찾았다. 이곳에 사는 둘째오빠네가 한번 다녀가라고 했거나 소꿉친구들도 보고싶었던 것이다. 고향땅은 언기도 달다더니 향토의 모든것이 예뻐하고 정답었다. 저녁무렵엔 평양에 시집간 동창생이 오래간만에 왔다가면서 중학시절동무들이 찾아왔다.

《처녀네 모색이 여전하구나.》
《집은 통일거리에 있나?》
동창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반겨 말했다. 《학생들 뽕 잘 차린 영상동무는 여기서 농장일꾼으로 일하고 이 동무는 기사장이야. 그래 난 지금 무슨 일을 하나?》
한 동창생이 이리저 모두가 궁금한듯 쳐다보았다. 로선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퀘도전자 차장이란다.》
동창생들은 《그래?!!》 하며 놀라워 했다.

《아니, 원래야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았나?》
로선선 이 선뜻 대답을 못한것은 그대문이었다. 이전에 그는 유치원에서 일했다. 후엔 부양으로 있었다. 오래동안 가두생활을 하던 그가 마흔살이 된 지난 나이에 들던 퀘도전자 차장이 되었을 때 동네내민들 역시 놀라워했지만 사람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엔 그것이 큰트락은지간에 동기가 있어 로선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고 공부시키고있었고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것이었다. 그는 평생의 가책에 부대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들이 문견에 쓴 《부양》이라는 두 글자앞에 자신을 세뇌할 수록 집에 들어와야 가장잡사나 신경을 쓰면 살아온 지난날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있고 쓰면 흥분시키기 가정을 돌본다고 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둔것도 몹시 후회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부추어 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며칠후 로선선은 집을 나섰다. 다시 직장에 나가겠다는 정말 생각 잘했소.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새 출발하오, 그새 나라에 진땀을 흘리고 활짝 너성로력이 많이 필요하고 일꾼이 바른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종용할 것 같소라고 하던 남편이 이거니저것만이라도 이제부터 부양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기뻐하던 아들을 생각하니 걸음에 못내 힘이 갔다. 그런데 남편이 한번 가보라고 권고한 도시미화사업소에 들러니 지배인이 반가워하는 하면서도 딱해하였다.

《교감소만 우리 로력이 다 찾구만, 이거 정말 미안하오.》

그 말이 다른 녀성들처럼 살지 못한 자기에게 드는 매갈아 로선선은 말아오른 얼굴로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다. 길거리가 망연히 서서 보니 건너편엔 공장이 있고 옆에는 락아소가 있었지만 또 거절당할것만 같아 찾아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집에 들어가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고 직장을 정하리라 마음먹고 군방에 있는 서령양-락방퀘도전자차장류소로 갔다. 정류소에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스러운 표정들이었다. 한동안이 지나 퀘도전자차 도착하자 손님들은 차에 오르면서 한마디씩 하였다.

《요즘엔 퀘도전자차가 잘 안 다니는지 모를 일이지.》
《왜야?》
《아니, 문제가 있어 그러지요.》
《술습나지.》
《다들 못해서지.》
《손님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들 계시라구요. 차장이 부족해 그러는겁니다.》
운전사는 부아가 난듯 씩 웃었다. 그 서술에 차장옆에 있던 로선선은

비칠거려였다.

(차장이 모자라나니?!...)

그는 다음정류소에서 서둘러 차를 내렸다. 그리고 한달음에 락방퀘도전자차사업소로 갔다. 사업소일꾼은 난데없이 나타난 그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정말 차장을 하겠는가 품썩어 물었다.

《차장력이긴한것은 사실인데 잘 생각해보오. 나이도 적지 않음에... 우리 한번 같이 잘 놓아주시겠소. 한두번 차를 타보고 그만둘 생각이면 아예 단념하고.》
하지만 로선선은 결심이 확고했다. 다시는 나라의 짐이 되는 사람, 제 가정의 리익만 추구하는 녀성, 공짜밥을 먹는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 속다짐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첫 출근날 말이 슬그머니 아바르타당까지 따라나오더니 팔을 꼬당했다.

《엄마, 정말 차장을 하러나?》
로선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자 딸이 《다른 직업도 많는데 하필이면 그 나이에 퀘도전자 차장을, 우리 학급엔 어머니가 차장을 하는 애가 없어.》 이리저 등을 돌려도. 로선선은 그만 생각이 착잡해져 잠시 섰다가 마음을 다잡으려 말하였다.

《차장이 어째서. 우리 나라엔 직업의 귀천이 없다. 나도 그 영화 봤지.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 군당책임비서의 안해가 수매원으로 일하지 않나.》
그러나 딸은 《거야 간부의 안해이니까 그렇지.》 하며 얼굴을 돌릴줄 몰랐다. 아침 5시에 집을 떠나야 첫 운행을 보장할수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서둘러 사업소에 나가 퀘도전자에 올랐지만 딸의 일로 하여 로선선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러나 아직 고요했다. 첫 정류소에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동영양 화백발전소 로동자인듯 한 손님들이 몇명 있을뿐이었다. 그들을 보자 딸이 한 말이 되살아났다.

《뉘? 로동자의 안해이기때문에 차장을 하느냐고? 덜덜떨기만 원...》
(아니, 내 잘못이지. 애들앞에 본보기로 살지 못했잖아!)

《로아주머니, 매일 아침 여기선 잠깐 내렸다 올라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로선선이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차장밖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렸다.

《3038호, 빨리 빵과 콩유유를 받아가세요!》
빵이러나? 콩유유는 또 뭇것인가?!... 그는 묻는 얼굴로 운전사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운전사는 빙긋 웃음뿐이었다. 그날 로선선은 운전사 배척철이 하는 이야기를 새겨들으며 따끈한 빵과 콩유유를 눈물속에 들었다.

(나라에서 퀘도전자, 무퀘도전자, 뷔스운전사, 차장들에게 빵과 콩유유를 공급하더니! 손님들을 나르고 차료를 받는데 무슨 힘든 일이라고...)

그는 지금껏 무심히 스치었던 많은 사람들을 여겨보기 시작했다. 평일날, 일요일이 할일이 없었던가? 딸은 빵, 무퀘도전자, 퀘도전자의 운전사와 차장을, 아침저녁으로 길을 쓰는 도로관리원들과 하수도정비하는 오수준혈공들, 공공위생시설관리공들... 그들모두가 돈보이었다. 소문없이 사회를 초석처럼 받들고 인민들의 생활에 자신을 고이는 사람들속에 자기도 서있다는 긍지도 갔다. 하기에 딸이 어머니가 차장을 하는것이 남보기에 창피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퀘도전자 3038호를 만나면 피한다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앞에 끌어안았다.

《너 지금 누굴 모욕하고있는지 아니? 어머니 하나가 아니라 인민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써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욕하고있다. 그게 얼마나 죄되는 일인지 아니?》
몇달후 설명할때 막차를 운행하고 밤늦어 퇴근해오니 딸이 아바르타당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로선선은 《늦어 미안하구나.》 하고 어느새 입뻗듯처럼 된 이 말을 하며 안고 온 꽃송이를 내밀었다.

《손님들이 주머니나. 명절날에 수고한다면서.》
딸은 딸없이 꽃송이를 매만지었다. 그날 막내는 어머니를 꼭 그러안고 갔다. 다음날 로선선은 차에 손님들을 태우다가 누군가 자기 손에 차료를 쥐어주며 다정하게 건드리는것을 느꼈다. 얼굴을 둘러니 딸이 웃으며 쳐다보고있었다. 로선선은 그를 껴안아주었다.

《에 딸이예요.》
그가 손님들에게 이리저 딸이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차장입니다.》
손님들은 절절 웃으며 뜻있게 눈인사를 보냈다.

이제 구원지기가 된 그들을 로선선은 우리 차 고정손님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그렇게 퀘도전자 3038호를 늘 타고 다니는 사람들속에는 영웅도 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었고 로력혁신자도 많았다. 대학, 연구소의 박사들도 있고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담방서들도 있었다. 전쟁로병, 영애군인들이 차에 오르면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애기어머니가 타던 차장자리를 내주는 로선선을 손님들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하였다.

퀘도전자 3038호에서는 늘 노래소리가 울려다녔다. 선창은 로선선이 떼고 손님들이 합창으로 발조 하였다. 새 노래가 나오면 남편처럼 배워 손뼉을 타며 보급하는 로선선을 손님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가 해설하는 사회공공질서법과 법규법률, 그가 랑동하는 혁명소설, 그가 읊는 시들을 듣느라 내려야 할 정류소를 지나치는 손님도 있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더 듣고싶어 우정 종결까지 가는 손님도 있었다. 보통강구역 봉화동 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정환전쟁로병은 신문에서 새 노래가 실리면 그것을 로선선에게 가져다주곤 하였다. 로선선은 고마와하였더니 로병은 머리를 지었다.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당쟁책선진에 노력하는 차장동를 돕고싶어 그러오. 내 언젠가 동무가 구겨진 차료를 내 손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무척 감동되었소. 그대 이랬지. 어제나 오늘이나 나라에서는 인민들을 위해 차료값을 늦게 채우고있다. 차료는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배부하는 혜택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존사하면 되겠는가.》
그가 로선선과 인연을 맺은것은 내해전 겨울이다. 그때 퀘도전자 3038호에 오른 그는 좌석에 앉자 그만 깜빡 졸았다. 이상하게 무릎등이 따스해 눈을 떠보니 럽세타가 띄워져있었다. 곁에 앉은 청년이 차장이주머니가 자기 세트를 벗어줘도 차장이 꾸미었다. 딸이나 며느리일 이보다 더하고 하고 그가 눈을 슬며시며 세타를 주두어는데 로선선이 다가와 말하

었다.

《아버님, 그냥 덮고계십시오. 잠기라도 들면 어쩌나 해서 그랬습디다.》
《후후후 로병은 퀘도전자를 탈 일이 있으면 우정 3038호를 기다려 타곤 했다. 살뜰한 차장을 한번 더 보고싶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도 다시 듣고싶어서였다. 로선선은 운전사와 인차 친동기처럼 되었다. 항상 그를 도와 차장비도 하고 차안도 알뜰히 거꾸였다. 배척철은 집에서 만든 별식을 운전대곁에 놓아주기도 하고 새 옷도 안겨주며 운행을 한마음이 되어 달리는 로선선을 로아주머니라고 부르던 대신 우리 누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그가 느닷없이 말했다.

《누이, 좀 힘이 든다 해도 다른데 가지 마오. 나와 함께 이 3038호에서 늙읍시다.》
로선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별말을 다. 내가 가자 어디로 가겠어요. 난 3038호를 못 떠나오. 이제 손님들을 떠나 보낼게요.》
《말하잖아. 그 말을 듣고 사업소 초급담방서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 말은 일에 진짜로 향심을 바치는 사람의 직업엔 바로 그런것이고 생활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법이지.》

로선선의 추억담에 동창생들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훌륭하구나. 일을 더 잘해줘. 그렇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 얼마나 좋나!》
로선선은 눈물이 글썽해 늘 생각하고있던것을 말했다.

《그래, 난 정말 행복해.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나. 사실은 다시 찾는 행복이지. 난 속으로 손님들과 약속했다. 녀르보장만을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다섯해전, 하루는 대학졸업을 앞둔 로선선의 아들이 배치사업때문이라면서 문건을 썼다. 딸이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무뚝 기뻐던 로선선은 그가 어머니직업안에서 펜을 펼친것을 보고 《에 그러냐? 그거 부양이라고 쓰려나.》라고 심상하게 말했다. 아들은 대답이 없고 대신 오빠에게 앉아 문건쓰는것을 들여다보고있던 의뎅인 막내가 고개를 들었다.

《부양이란 무슨 말이에요?》
막내가 제 오빠에게 묻는것인지, 자기에게 묻는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아무튼 로선선은 속이 뜨끔해져 입을 다물고말았다. 더구나 딸이 《그건 늙은이나 불자야, 자기환자같은 사람이 남의 이름을 부자 살아간다는 소리야.》 하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그날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하지는 더우기 아니었었다. 그런데 어쩌려 제 남편의 부양을 받고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혜택으로 자식을 둔 한 부모를 더 이상

《요즘엔 퀘도전자차가 잘 안 다니는지 모를 일이지.》
《왜야?》
《아니, 문제가 있어 그러지요.》
《술습나지.》
《다들 못해서지.》
《손님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들 계시라구요. 차장이 부족해 그러는겁니다.》
운전사는 부아가 난듯 씩 웃었다. 그 서술에 차장옆에 있던 로선선은

《로아주머니, 매일 아침 여기선 잠깐 내렸다 올라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로선선이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차장밖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렸다.

《3038호, 빨리 빵과 콩유유를 받아가세요!》
빵이러나? 콩유유는 또 뭇것인가?!... 그는 묻는 얼굴로 운전사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운전사는 빙긋 웃음뿐이었다. 그날 로선선은 운전사 배척철이 하는 이야기를 새겨들으며 따끈한 빵과 콩유유를 눈물속에 들었다.

(나라에서 퀘도전자, 무퀘도전자, 뷔스운전사, 차장들에게 빵과 콩유유를 공급하더니! 손님들을 나르고 차료를 받는데 무슨 힘든 일이라고...)

《에 딸이예요.》
그가 손님들에게 이리저 딸이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차장입니다.》
손님들은 절절 웃으며 뜻있게 눈인사를 보냈다.

이제 구원지기가 된 그들을 로선선은 우리 차 고정손님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그렇게 퀘도전자 3038호를 늘 타고 다니는 사람들속에는 영웅도 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었고 로력혁신자도 많았다. 대학, 연구소의 박사들도 있고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담방서들도 있었다. 전쟁로병, 영애군인들이 차에 오르면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애기어머니가 타던 차장자리를 내주는 로선선을 손님들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하였다.

퀘도전자 3038호에서는 늘 노래소리가 울려다녔다. 선창은 로선선이 떼고 손님들이 합창으로 발조 하였다. 새 노래가 나오면 남편처럼 배워 손뼉을 타며 보급하는 로선선을 손님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가 해설하는 사회공공질서법과 법규법률, 그가 랑동하는 혁명소설, 그가 읊는 시들을 듣느라 내려야 할 정류소를 지나치는 손님도 있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더 듣고싶어 우정 종결까지 가는 손님도 있었다. 보통강구역 봉화동 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정환전쟁로병은 신문에서 새 노래가 실리면 그것을 로선선에게 가져다주곤 하였다. 로선선은 고마와하였더니 로병은 머리를 지었다.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당쟁책선진에 노력하는 차장동를 돕고싶어 그러오. 내 언젠가 동무가 구겨진 차료를 내 손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무척 감동되었소. 그대 이랬지. 어제나 오늘이나 나라에서는 인민들을 위해 차료값을 늦게 채우고있다. 차료는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배부하는 혜택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존사하면 되겠는가.》
그가 로선선과 인연을 맺은것은 내해전 겨울이다. 그때 퀘도전자 3038호에 오른 그는 좌석에 앉자 그만 깜빡 졸았다. 이상하게 무릎등이 따스해 눈을 떠보니 럽세타가 띄워져있었다. 곁에 앉은 청년이 차장이주머니가 자기 세트를 벗어줘도 차장이 꾸미었다. 딸이나 며느리일 이보다 더하고 하고 그가 눈을 슬며시며 세타를 주두어는데 로선선이 다가와 말하

었다.

《아버님, 그냥 덮고계십시오. 잠기라도 들면 어쩌나 해서 그랬습디다.》
《후후후 로병은 퀘도전자를 탈 일이 있으면 우정 3038호를 기다려 타곤 했다. 살뜰한 차장을 한번 더 보고싶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도 다시 듣고싶어서였다. 로선선은 운전사와 인차 친동기처럼 되었다. 항상 그를 도와 차장비도 하고 차안도 알뜰히 거꾸였다. 배척철은 집에서 만든 별식을 운전대곁에 놓아주기도 하고 새 옷도 안겨주며 운행을 한마음이 되어 달리는 로선선을 로아주머니라고 부르던 대신 우리 누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그가 느닷없이 말했다.

《누이, 좀 힘이 든다 해도 다른데 가지 마오. 나와 함께 이 3038호에서 늙읍시다.》
로선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별말을 다. 내가 가자 어디로 가겠어요. 난 3038호를 못 떠나오. 이제 손님들을 떠나 보낼게요.》
《말하잖아. 그 말을 듣고 사업소 초급담방서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 말은 일에 진짜로 향심을 바치는 사람의 직업엔 바로 그런것이고 생활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법이지.》

로선선의 추억담에 동창생들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훌륭하구나. 일을 더 잘해줘. 그렇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 얼마나 좋나!》
로선선은 눈물이 글썽해 늘 생각하고있던것을 말했다.

《그래, 난 정말 행복해.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나. 사실은 다시 찾는 행복이지. 난 속으로 손님들과 약속했다. 녀르보장만을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고마워 우리 제노를 못내일 함담애하고 선거장이로!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믿음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밝아왔다.

경국일색으로 단장된 나라라 곳곳의 선거장에도 환희에 넘쳐 들떠서는 우리 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 무한한 긍지와 기쁨이 넘쳐흐른다.

우리의 혁명투쟁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찬성의 한표를 바칠 총정과 애국의 열정이 그 누구의 가슴속에서나 용암만강 끓어넘치고있다.

공화국의 찬란과 더불어 13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선거는 우리 로동계급모두가 대대로 누리는 수렴복, 장군복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한평생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수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을 다수락주시고 로동계급이 일하는 일터를 찾았고있어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여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부대인 로동계급의 핵심들을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내세워주시고 선거의 날에는 로동계급을 찾으며 그들과 함께 로동지대의 원후보자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우나라에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공장과 건설장마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던 주체 46(1957)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남포제련소(당시)의 로동계급은 크나큰 환희에 넘쳐있었다.

천리마를 타고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제련소의 로동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인민의 최고주권기관 대표로 선출하게 된것만도 커다란 자랑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빛고된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선거구에 몸소 나오시게 하시니 그 영예와 긍지는 그대로 폭풍같은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반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선거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 평범한 로동자대의 원후보자를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그날에 바치신 찬성의 한표는 그대로 천리마를 타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선비주의를 대담하게 불사하며 기적과 위훈 창조에로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로동계급모두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고 최상의 사랑이었다.

우리 로동계급을 부강조국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 51(1962)년과 주체 56(1967)년, 주체 66(1977)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에도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며 로동계급출신의 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하시었다.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후보자로 선출된 그들은 나라없던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속명으로 받아들이며 그역에 시달려야 했던 방직공과 탄부, 전력생산자들이었다.

위대한 어버이를 선거장에 자기들끼리 같은 일터, 같은 초소에서 일하는 혁신자들에게 찬성의 한표한표를 바치신 그 나날의 방직공들과 탄부들, 전력생산자들의 격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로동계급에게도 가슴뜨겁게 간직된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주체 79(1990)년 4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대680호선거구 제5호 분구선거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대의원후보자인 련향기업소 분과업연직장직장에게 투표하신 백두산전세원인들의 그날의 사랑과 믿음은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지나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나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라를 되찾고, 내 조국방에 인민의 타락, 로동계급의 세상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용음을 받들어 인민의 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오늘 우리 로동계급의 행복과 긍지는 하늘만큼 넓히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동계급을 찾아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꽃피어나는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사랑의



* 총정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

높은 삶의 권리를 지닌 공진 함준 동봉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함준 동봉협동농장이 들썩하게 끓어번졌다. 명철분위기에 휩싸인 농장마는 곳곳에서 북소리 높이 울리는 속에 일꾼들과 농장원모두가 떨쳐나 마당들이 좁다더군 흥겨운 춤판을 펼친다.

홍분된 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이들의 가슴마다에 자신들의 손으로 인민투쟁을 반석같이 다져가는 기쁨과 보람, 이 세상 가장 값높은 삶의 권리를 지닌 공진과 행복감이 가득 넘쳐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건설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입니다.》

내 조국 어머니나 불기운이 따듯아 흐르고 사람들의 기쁨이 한껏 무르녹는 오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더욱 절절한 그리움으로 눈을 뜨겁게 적시고있었다.

몇해전 동봉땅을 찾았을때 그날 농장벌에 탐과 진심을 묻어가고있는 혁신자들의 소행에 대한 보고도 받아주시고 판로위원장이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농사일을 배운 오랜 일꾼답게 앞으로도 잃지 말고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격려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나라없던 지난날같으면 길가의 막걸리처럼 버림받았을 자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나라의 어엿한 주인, 온 나라가 다 아는 본보기농장의 주인들로 되었으니 정말 이보다 더 큰 영예, 행복한 삶이 또 어디 있랴.

은 세상에 자랑될지모르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누리는 삶이 귀중할수록 나라를 더욱 가두 채우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로 가슴끓이는 이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본보기농장과 산악같이 일떠선 이들은 기세충천하여 농사차비를 앞당기면서 지난 1월말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한다는 기쁨과 긍지를 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많은 도시기쁨을 실어들이던 제 4작업반원들, 전국농업부문공조장대에 참가하여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른새벽 남침자 조건에 기쁨을 실어내곤 한 이 작업반의 3분조였다...

이들만이 아닌 농장의 모든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알곡투산으로 우리의 인민투쟁을 든든히 다지리라 농사를 더욱 확고하고 지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준비사업에 한사 함없이 떨쳐나섰다.

컴퓨터에 의한 농업과학기술 지식보급과 영농투쟁의 과학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었다.

뜻깊은 오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인민투쟁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반석같이 다져가는 높은 삶의 권리를 지닌 공진과 보람을 애국충정으로 끝없이 빛어내기 위하여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각자 독자들이 보내여온 편지를 읽고

벌려었다. 그 나날 여러차례의 파견인 협의회가 열렸으며 환자의 몸으로는 감내할 약물들이 련속 흘러들었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환자의 병상태가 날을 따라 호전되어가던 지난 실명날도 저녁이었다.

한 녀성이 음식주제를 들리고 환자의 방에 들어섰다. 그 는 부파장의 안해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에서 뚜렷이 나타났고있습니다.》

지난해 말 김일성총대학 평양의학대학원에서는 30대 중엽 나이의 환자가 실명하였었다. 어느 한 단에서 로동자 기 몸과 같이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정병 처장이 평범한 사람들 수도도의 건강병원에서 무상 치료에 응해주시는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지게 해서선 안된다는 자각을

마르면 슬기가 오고 행복이 온다는 천리가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받들 총창과 애국의 마음을 선거교에 담아 혁명투쟁을 반석같이 다지리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경찬

안고 힘찬 전투를 벌여 짧은 기간에 해결방도를 찾아낸 이들은 지난 2년 간 환자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바쳐온 의료인들, 천혈속의 정이 있어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석같이 다져나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되어있습니다.》

라방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주민은 평양안과병원 소아과의 의료인들을 의하여 자기의 아들이 이제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적은 편지를 보내왔다.

환자가 난치성질환으로 생활상편을 겪게 된것은 2년 전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벌써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필수품에 없는 환자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담당사의 흉일속동무를 비롯한 이웃 의료인들은 생각이 많았다. 그때부터 이들은 중환자가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어린이의 광명을 위해 탐구의 낮과 밤을 보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지게 해서선 안된다는 자각을

본사기자 방경찬

세상에 부럽없는 이 행복 안겨주신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식령스키장에서 즐거운 스키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청소년학생들

우리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만 있으라

스키야영, 우리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나온 이 말이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힌 그 때로부터 흘러 온 날과 달은 길지 않다. 하지만 지금 마식령스키장에서 일어나는 대학생들과 소학교학생들의 스키바람은 세찬 열풍으로 온 나라에 사회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고있다. 마식령의 천연산악대에 일떠선 세계 일류급의 스키장이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들로 흥성거리고있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스키야영과 관련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신데 그도 마음째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청소년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낳은 전설같은 새 화폭을 전하려고 우리는 평양을 떠나 기행의 길에 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확히 받아들여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울 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영광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흥그러운 마을을 안고 두시간 남짓이 휘둥둥속을 타고 달리느라 어느덧 목적지 가까이 도착하였다. 무지개동굴을

눈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꺾어들어가 스키장문구를 통과한 우리는 차에서 내려 웅장한 마식령 스키장을 이윽고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즈음에는 보기 드문 흰눈의 세계가 마식령스키장의 전경을 더욱 눈부시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꾼인 김창호동무는 며칠전에도 이곳 마식령스키장에 많은 눈이 내려 스키야영생들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고 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대학생들과 소학교 학생들이 보급자리를 편 호텔과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이 밀물처럼 파도쳐왔다. 마식령의 추위와 대조되는 훈훈한 호실들, 넓다란 호실마다 편리하게 놓여있는 고급침대들과 침구들,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갖추어진 액정TV들과 특화기종, 야영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랭크들까지 그릇마다 가득 쌓인 당과류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 행복한 현실을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과 함께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의 뜻깊은 구절이 떠올랐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 아버지수령님의 이런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멀고 험한 전진길을

달리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넘친 야영으로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에 또 하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화원을 가꾸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격정에 잠겨있던 우리의 귀전에 오전스키운동을 마치고 들어서는 야영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와 만난 중구역 창전소학교의 소년단지도원인 유금숙동무는 말하였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되는바가 큼니다. 이제 마식령스키장까지 완공되면 마식령스키장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라고, 현대적인 스키장에서 웃고떠들던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혁명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 매일같이 가슴을 울려주신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학생들 이 스키타기를 충분히 배우도록 야영날까지 정해주신 그 사랑은 얼마나 고마울고 나 어린 학생들을 여러명의 교원들이 함께 손 보살펴주도록 해주신 그 손길은 얼마나 따스하며 소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형님, 누나들과 똑같은 식사방을 정해주도록 하신 그 은정은 또 얼마나 웅심 깊은것인가.

얼마후 우리는 야영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있는 식당에도 들러보았다. 풍성한 식탁에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오늘을 위

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이 더욱 젖어들었다. 호텔 한 일터는 야영생들의 생일날이면 더욱 특별히 차려주기 위하여 식당 종업원들모두가 밤잠을 잊다싶이 한다고, 안미경, 조일경동무들을 비롯한 조리사들의 지성이지만 아니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는 스키장과 복장을 내어주는 홀에서 파장 남용규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파장을 스키장의 규모와 야영생들에 대한 스키교육과정을 비롯하여 많은것을 알게 되었다. 야영생들은 스키교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스키타는 자세와 기초동작을 배우다가 차츰 전체동작이 되어가고 돌아내리기, 두스키정행동내리기 등의 스키기술을 배우는데 야영기간이 끝나갈 때가 되면 모두가 주로부터 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지체내려 온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우리는 야영생들의 오후스키운동을 진행하는 초, 중급주로에도 가보았다. 주로 좌우측에는 명마루로 오를수 있게 승강기와 엘리베이터가 갖추어져있었다. 아찔한 주로에서 스키를 타고 지체내려오는 야영생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은근히 우리의 가슴을 초이게 하였다. 하지만 얼마나 이악하게 배는지 그 야영생활 며칠밖에 안되는 소학교학생들도 제법 뽐내며 스키타는 모습이 볼수록 대견하기 그지없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남용규동무는 자기도 처음 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새 스키타기로

리를 터득하고 주로를 따라 지체내려오는것을 보고 놀랐다고, 지난해 백두산지구체육촌을 찾으면서 마식령스키장의 오늘을 그려보면서 스키는 체력단련에도 좋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심장으로 접감하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저녁은 또 저녁대로 야영생활에 대한 감상발표회와 오락회, 중급운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스키야영생들, 이들의 생활은 단순히 행복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구역 창전소학교의 조영복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스키야영의 나날에 지은 《사랑의 폭포 쏟아져요》와 《행복의 최고봉》 등의 구절구절을 새겨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기어어 보답할 야영생들의 열화같은 충정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행복의 화폭이였다.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청소년학생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들과 뚜렷한 반대로 백두산 소학교를 천만년 빛내가는 나라의 영웅으로 더욱 억세게 자랑할 우리 후대들의 신념의 맹세를 감동깊이 읽을수 있었다.

우리의 기행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마식령스키장에 끝없이 울려가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보답의 메아리로 이어갈 우리 새 세대들의 미더운 성장의 모습을 찾아 우리의 기행길은 계속될것이다.

「대양의 빛발속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

3월 3일에 떠나게 될 마식령스키야영과 관련하여 중구역 창전소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는 학부형회의가 진행되었다.

세계 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나보내게 된 사실만으로 학부형들의 걱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하지만 담임교원인 김정필동무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꾼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꿈만 같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모든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마식령스키장이 학생들을 기다리고있으며 그래서 부모들이 준비해줄것은 한 한가지도 없었던것이였다.

교실의 여기저기서 흐느낀 소리가 울려왔다. 이 나라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이것이 못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학부형들은 끝내 격정의 물폭을 터치고야말았다.

며칠후 버스를 타고 스키야영을 떠나는 자식들을 바래우며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꿰뚫었다.

(아, 경애하는 원수님은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학부형이십니다!)

그 말에 학생들모두가 울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떠올라 울었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올랐다.

꿈만 같은 스키야영과 더불어 성장의 키를 더욱 솟구치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도 호텔종업원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

식당에서 벌어진 <비상사건>

스키야영이 시작된 첫날 마식령호텔의 식당에서는 <비상사건>이 일어났다. 중구역 창전소학교 3학년 3반 학급장인 윤성순학생이 수저를 들일을 못하고 고개를 숙고있었던것이였다.

식탁에는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산해침기가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다급히 학교교원들과 식당의 조리사, 종업원들이 달려왔다.

어디 아픈가, 구미에 맞지 않는가 등등 수많은 질문속에 나 어린 학생은 여전히 고개를 숙고있던 조영복 동무를 가로쳐들었다.

동참, 동참 식탁에 떨어진 수저를 들일을 보며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무도 희한한 음식들을 마주하니 아버지원수님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뜻밖속에 앉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모두가 울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떠올라 울었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올랐다.

꿈만 같은 스키야영과 더불어 성장의 키를 더욱 솟구치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도 호텔종업원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

5점 꽃이 웃는 일기장

《오늘 우리는 주로를 오르내리며 여러가지 동작들을 배웠다. 처음에는 아찔해서 다리가 떨렸지만, 주로 타노니 힘들지도 않고 재미나기만 하였다. ... 아버지원수님께서 놓아주시는 사랑의 승강기를 타고 초, 중급주로에 오르며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나라의 왕으로 여기고 사랑하시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나도 동무들도 난생처음 훌륭한 호텔에 잠자리를 써

승강기를 타며 즐거운 스키운동을 하는 꿈같은 행복을 누리고있지는 않나. 나는 앞으로 아버지원수님의 사랑, 이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을지,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가 되겠다.」

야영의 강성조선의 모습에 비친 학생들의 성적증에 더욱 무성하게 피어날 5점꽃은 이렇게 야영생들의 일기장에서도 밤하늘의 못빛처럼 소리가 웃고있었다.

지새지 말아다오, 마식령의 밤아!

우리가 마식령호텔에 보급자리를 편 중구역 창전소학교의 학생들을 찾아왔을 때였다.

한 호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모여앉아 일기를 쓰고있었다.

나 어린 이들의 앞날에 행복의 나날이 지어있으리란 오늘들의 즐거움 하루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글줄을 달리며 사색하는 그 모습들이 대견스레 안겨왔다.

스키야영을 하면서 무엇이 좋았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백운, 김학연, 윤영희학생들이 겨끔내기로 풀었다. 스키도 스키복도 멋있다고, 호실의 침대도, 옷장도 사와도 좋으며 매일 먹는 음식과 파자, 사랑도 맛있다고, 마식령에 폭정이 들은 모습들이었다.

그들을 보느라니 조선소년단 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이 우리의 귀전에 울려오는듯싶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감성극기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우리 새 세대들이 누리

는 스키야영의 즐거운 하루하루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우리 후대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고 이 땅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시어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후대사랑이 안아온 행복이 아니던가.

마식령호텔의 일꾼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1기때에도 그러했지만 2기 스키야영을 마치고 떠나는 날 학생들모두가 이것을 쉬이 떨음을 못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힘과 용량을 키우던 스키장을 다시 보고싶다며 그곳으로 달려올라가기도 하고 보급자리를 펼쳐놓은 호실도 한번 더 돌아보고가기도 하고 호텔의 층계를 오르던 학생들, 진정 떠나기 아쉬운 눈물이 글썽하던 아이들...

아직은 젊잖은 나 어린 학생들조차 어이하여 그토록 집보다 여기 마식령에 더 정이 들고 이곳을 더없이 소중한 보급자리로 여기게 되었다.

스키야영의 나날 학생들이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스키타는 정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고서 더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이 행복의 보급자리에 흘러들고 있었다.

친부모도 주지 못하는 그 사랑에 보답하자고 열성껏 스키기술을 편마하던 그 나날 나 어린 가슴들마다 희망과 포부, 꿈도 더욱 커졌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렇듯 명도자의 깊은 관심속에 학생소년들의 스키야영이 조직되고 크나큰 은정이 베풀어진적이 있었는가.

정령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매일, 매 시각 따사같이 비껴 흐르는 곳에서는 그 어린 가슴들마다 애도 그토록 귀중한 보급자리로 깊이 새겨진것이라.

그래서 더욱 환희롭게 안겨오는 마식령스키장이였다.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 후대들의 영원한 보급자리로 누리게 될것인 빛날 내 조국의 미래를 안아보게 하는 가슴벅찬 행복의 환무대였다.

우리 당이 마련해준 행복의 보급자리에서 아이들은 일기를 쓴다.

지새지 말아다오, 마식령의 밤아! 라고 글줄에 담아가는 작은 가슴들에 마식령보다 더 크고 높은 애국의 마음이 자리잡고있었다.

야영의 즐거움과 랑만은 스키장에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저녁마다 마식령호텔에서 스키야영생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생활은 또 얼마나 랑만적이었던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생애 대한 희열과 랑만은 인간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긍지와 참된 삶을 빛내이기 위한 인간의 지향을 더욱 높여준다.》

학생들의 스키야영의 하루 일과가 끝날무렵 호텔정문으로 들어서서 우리에게 청년동맹일꾼들과 교원들, 호텔종업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밤공 홀에서 춤판이 벌어졌었습니다. 소학교학생들이 춤을 한창 재미나게 추는데 구경하던 대학생들도 춤판에 뛰어들어 더욱 흥이 났습니다.》

《기자동무들도 보았더라면 아마 글감이 저절로 떠올랐을겁니다.》

듣고보니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저녁식사를 마친 후의 학생들의 생활은 또 그것대로 이채로웠다. 스키클럽에 넘치던 희열과 랑만이 그대로 즐거운 저녁시간으로 이어졌다.

4층홀에서는 김형직사범

대학 학생들과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학생들이 학습과 탐구의 나날에 거둔 성과를 나누는 과학탐구결과발표회 야영기를 펴고 진행되었다. 과학탐구의 요소를 점령하기 위해 탐구로 낚고 밤을 이어가던 대학생들의 진취적인 학습기풍이 여기 마식령에서 더욱 고조되는가싶었다.

김형직사범대학 수학학부 4학년 김정석학생이 출연한 《수자식위상학의 컴퓨터도형처리에서의 응용》이라는 토론은 그 제목부터가 모두의 관심을 끌어당겼다. 뒤이어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프로그래밍학부 4학년 1반 박남현학생은 《체육선수운동능력평가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진지하게 설명을 해나갔다. 결구도 척척이놓고 알기 쉽게 해설해가는 이들에게 모두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특히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바지하기 위해 피터게 노력하는 이들의 탐구정신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서로가 관심하는 분야인것으로 하여 허심하게 의견을 나누며 리해를 깊어간 의의 있는 발표회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우등생

랑만이 넘치는 즐거운 저녁

대학의 영예를 펼치는 자량도 펼치면서 마식령에서 맺어진 우정을 더욱 두터이하는 뜻깊은 저녁이었다.

한편 아레송에서는 즐거운 오락회가 벌어지고있었다. 유정한 노래소리에 이끌려 3층홀에 들어서서 우리의 눈앞에는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와 춤에 담은 중구역 창전소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감동깊게 안겨왔다. 흥겨운 춤가락이 펼쳐지는가 하면 독창, 중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속에 터져오는 박수갈채와 재정으로 오락회는 절정을 이루고있었다.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 《북방은 인민의 노래》 등 시대의 숨결이 높뛰는 노래가 울려나올 때마다 걱정에 넘

쳐 다같이 함창으로 부르는 야영생들, 이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 희한한 스키야영까지 마련해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즐겁게 보내던 마식령스키야영의 저녁을 우리 새 세대들은 한생의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선문제에서 당장 손을 떼라, 미국은 우리 인민의 이 충고를 명심하는것이 좋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정당적인 로켓발사훈련을 악

의에 차서 걸고들여 못되게 놀아내는데 대해 조소를 금할수 없다.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꼴

지금 미국이 놀아내는 꼴은 꼭 불에 놀란 늑이 부지깽이만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도대체 미국이 우리를 걸고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고야헤 체면이 있는가. 얼마전 미국이 《B-52》전략 핵폭격기를 조선서해상공에 투입하여 북집력타격연습을 벌려도 지금은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어 침략전쟁연습의 화학태를 질게 풍기고있는것은 도발이나 위협이 아니고 아이들 장난인가. 뼈개놓고말해서 지금 까지 조선반도에 도발과 위협을 반복무 해온 호전광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의 방어형태로 트들의 훈련발사를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악의 제국에 경고한다

요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가스름게 여겨진다. 미국무장관 케리며 전 미국대통령 부쉬대위의 어중이떠중이들이 게저품을 물고 우리에게 대해 《악》이 너무 하고 악랄하게 하여 조국을 뒤흔어 인간추물들을 《영웅》으로 개여올리는 추태까지 부러워하는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나난다.

미국이 우리의 방어형태로 트들의 훈련발사를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정치협박공들의 소굴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 미국의 망둥은 가장 우열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팔까지 지켜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줄뿐이다. 악의 제국에 경고한다.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시비질하며 도발을 꺾어오는것은 스스로 제 머덤을 파는 자멸행위이다.

지금 우리들은 물론이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헤딩비는 미제에겐 선군조선의 강령며 무쇠주먹을 보여주고야말 의지로 비상히 격동되어있다. 우리는 미제에 대한 치솟는 중요심을 알고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단애에 쳐부실 만단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이다.

악자의 가련한 비명소리

지금 미국이 우리의 로켓 발사를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법적 떠들면서 여론을 어지럽히고있지만 우리는 적들의 광란을 가련한 악자의 애달픈 비명소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위력한 로켓도 우리들의 대지를 박고 오를 경우 아예 까무라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미국은 지금 적들의 유지한 망둥도 스스로 자기 체면을 오물통에 처넣고있다.

이런 로켓발사훈련이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이고 주권 국가의 자주적인 권리행사인데 왜 그다지 놀라지 못하는 송냥이처럼 이리 튀고 저리 뛰지는 모르겠다. 세상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고 미사일 발사도 제일 많이 하며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것이 미국이 아닌가. 그러자들이 우리가 로켓 몇발 쏘것을 가지고 바빠맞아 허둥지둥하는것을 보면 그야말로 쏘스럼기 그지 없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라도 똑바로 알고 세상을 웃기는 추태를 작작 부려야 할것이다. 이것이 강자로서 우리 인민이 주는 마지막충고이다.

논판의 들끓는듯 해치울것이다

미국이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또다시 드러내며

아부세기를 치는 꼴은 볼수록 가판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정정

당당한 로켓발사훈련을 구실로 《제제》와 《봉쇄》를 떠들며 정세를 악화시키고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우리는 지금껏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지를 높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왔으며 벌써 그 보람찬 투쟁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적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을진대 로동탄대로, 사회주의탄대로가 높이 울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도 미련을 풀고 또다시 《제제》, 《봉쇄》니 하고 악을 쓰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 망둥들인가. 실례에서 허훈을 찾을줄도 모르는 이런자들이 당국을 주무르고있으니 정사

천하의 날강도들이 누구에게 사대질인가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를 두려워하니 시비질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지어 핵문제에 대해서까지 이러저러하게 헛소리하고있는것은 실로 역스럽기 그지 없다. 미국이 위협을 우리의 자주적 행동을 《위협》이니 튀고 하고 악담을 퍼부으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는가. 세상에 있어 못된것은 도발이라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명을 마구 짓밟는 날강도들이 누구에게 감히 사대질인가.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제멋대로 날칠수 있었지만 여기

가 한해농사지어 메운맛도 할수 밖에 더 있었는가. 미국의 취약성만 세계면에서 더욱 날날이 드러날뿐이다. 미국이 아니라 그 하네비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핵추진 잠수함이, 핵전략폭격기나 하는것들을 틀어잡아 두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군은 그 흥몰스러운 악구들을 모조리 논판의 들피잡 해치울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궁지와 영예를 안고 울레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는 힘을 가득히 채움으로써 적들과의 철연한 대결전에서 또다시 통상훈을 부르겠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김 광 남

로 쳐갈기며 일단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영가 죽을 벗어 던져라

남강도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반인륜성과 잔인성으로 악명 떨치는 미제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송냥이 미제가 뒤집어쓴 양가죽에서는 피 비린내가 풍긴다. 오늘 우리 인민이 계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책동에 끄떡하지 않고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고마운 제도에 대한 한없는 사랑, 즉 으른 죽이지 절대로 사회주의제도를 버릴수 없다는 드림같은 신념과 의지가 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철승살같이 뚫힌 우리 조국에서 그 무슨 《연화》를 바라는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것만큼 어리석고 부질없는것이다.

만일 미국이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함부로 덤벼든다면 우리는 지금껏 다지고자 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피비린 송냥이소음을 통째로 불살라버리고야말것이다.

이와관련된 약학연구소 연구사 오수산

인간추물들을 개여올리는 역겨운 추태

최근 남조선을 행각한 전 미국대통령 부쉬가 핵문제를 운운하며 우리를 교악하게 걸고들 《제제》나발을 불어댔다. 한편 그 무슨 《연화》, 《인권》이니 튀고 하고 우를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가스름게도 찬양하고 추어주는 망발까지 췌쳐냈다. 부쉬의 이같은 언동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며 북남관계의 전진에 제동을 걸고 남조선당국을 동태대변으로 부추기자는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이로써 부쉬는 자기의 변질없는 반공화국적대감과 인기에 못 이겨 북침야망을 기어 이루어보려는 옹악한 속심을 날날이 드러냈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날로 혼잡해지는 남조선선거정국

남조선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6월초에 있게 되는 지방자치선거날까지 다가올수록 남조선의 각 정치세력들이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CBS》방송은 지난 2월 24 일 민주당이 공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당정책안을 발표하며 대하여 보도하였다.

남조선인론들은 지금 여야세력들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어우를 두고 여당과 야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남조선인론들은 지방자치선거를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과 갈등, 각 정치세력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정국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해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도이쉴란드의 수사당국이 이전 오수행적수용소 간수였던 자국민 3명을 구속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세월이 흘러도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로씨야의 명성을 개선한 쓰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진행되었다. 공연에서 로씨야는 자기의 우수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세계앞에 과시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놓고 무슨 큰 번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려는것을 보면 바빠나긴 바빠나니 모양이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 호전광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여 악담을 쏘더라도 그것은 이발뻔힌 도적개 짓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없으며 배심든든하다.